

오늘 오름

Gravity

toward

이  
의  
의

the Island

Yi Yunyi



돌이  
죽었다.

Stone Dead  
(Completely Lifeless)

갯녹음\*\*

바다 사막화.  
백화.

물  
꼬르륵.



관광, 치유

사변적  
지역,

체험적  
사유,

생태적  
농담.

유적, 공원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동선, 스토리텔링의 구축, 추억 구성.

개인의 기록, 비디오 에세이.

폰 캠.

액션 캠.

넛들임

정수리, 정신이 나갔다 들어옴.

요가, 다이빙

들숨과  
날숨,

밀물과  
썰물,

상승과  
하강.

실문대할망

거인형 여인.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익사하는 여성, 강렬한 비극성,  
모성의 허구.

구삼승할망

저승할망,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

꿈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혼이 날아다니면서 하는 여행.

화산섬

영혼이 들끓다 폭발하여 섬 안에 섬이 되다.  
전체에서 파편으로, 이동하는 감정의 결정체.

용암수형

용암 속에 남겨진 수목의 형태,  
타버린 나무의 형태,  
폭발과 흐름의 흔적.

화산탄

떨어져나가 굳은 상태, 감정의 조각.

연산호

소프트 코랄,  
멘드라미류,  
해송류,  
온대.

식물에 가까운 무척추동물, 부드러운 동물체.  
작은 촉수 동물들의 군체, 수축과 이완.

돌산호

하드 코랄,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  
열대 및 아열대.

광물에 가까운 판상구조,  
딱딱한 몸체,  
경산호류,  
수온 상승과 확산.

돌이  
죽었다.

Stone Dead  
(Completely Lifeless)

갯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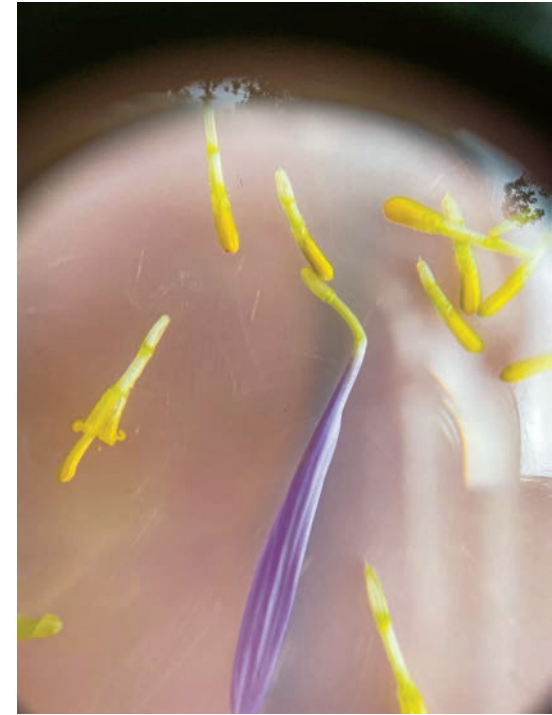
바다 사막화,  
백화.

물  
꼬르륵.

\* 인공적인 구조물(인공어초)이나 자연석 등을 시설하여, 물고기가 서식·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 없는 서식지를 조성한 해역  
\*\*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

바다목장	Marine Ranchings	←
식물	A Neomort	5
삼청공원	The Samcheong Park	6
돌문화공원	The Jeju Stone Park	9
오늘 오름	Today's Oreum	14
늦은 지네 이야기	A Late Centipede's Story	19
반딧불이 축제	The Firefly Festival	23
중력과 은총	Gravity and Grace	27
약초꾼과 아내	An Herbalist and His Wife	32
연산호와 고라니	Soft Corals and Water Deers	39
물결 위 밀랍	A Beeswax on the Wave	40
사랑의 죽	A Porridge of Love	43
무더기	In a Muddle	49







하루하루 머리 위로 뿜다 지는 것은 해도 달도 아니었다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는 일회용 링거팩들 그 말잔 액들이 만들어내는 보름달이며 반달 초승달 모양으로의 주기 나는 텃줄에 매달린 아이처럼 길게 주사줄을 늘어뜨리고 방울방울 자라났다

내 감각은 처음부터 식물성이었어요 그건 나무 속의 수맥들처럼 보호받으며 사는 법이죠 똑똑 병문안을 온 달빛의 눈금을 재며 고백했을 때 알코올 냄새를 풍기는 하얀 손이 스치고 지나가고 화초를 다듬듯 내 머리칼을 잘라주던 그녀의 손은 금방이라도 증발해버릴 것처럼 아찔했어요

이 알약에서 곧 잎사귀가 돋을 거예요 그건 삶을 가로질러 가라는 신호 백색뿔을 쓴 그녀가 속삭였어요 내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씌우는 그녀 내 숨결을 눌러오는 가슴에서 출렁이던 실리콘 이곳은 우리의 인공 낙원인가요?

회전문을 돌아 술래잡기하듯 빠져나왔다 거리에 사람들 흘깃흘깃 뒷걸음쳤다 머리 위에 태양은 몰래 모은 알약 몽치처럼 눈이 부셨다 링거병 안에서 재빨리 광합성을 해대는 포도당들 신호등에서 파리 떼가 녹색 눈을 볼록하게 점화했다 달려드는 저 앰블런스 신호도 무시한 채 터져버린 내 머리의 붉은 꽃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숲해설가 이윤이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들 꾸셨나요? 그런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와 같이 <꿈과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치 꿈길을 산책하는 것처럼, 한번 의식적으로 마주치는 자연물과 상황들을 기억하려 해보세요.

짧은 연상 훈련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을 깨우고 자연에서 정확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봅시다.

이곳 삼척공원은 물이 맑고 숲이 맑으며 사람의 마음까지도 맑은 곳이라고 하여 '삼척'이라 불린다고도 하고, 도교의 삼척전에 소격전이 있었다 하여 '삼척'이라 불린다고도 해요.



삼척공원 내 들레길 체육 시설 쉼터, '열린 서가'

우리도 머리, 마음, 몸 이 세 가지가 맑아지는 스트레칭을 먼저 시작해볼까요? 이름하여, <마인드 클렌징> 체조입니다.

- 눈감고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심호흡 세 번
- 얼굴에 화장을 지우듯 마음에 때를 닦아낸다고 상상
- 가슴 앞에 양 손바닥 펼치기
- 안으로 크게 다섯 번, 바깥으로 크게 다섯 번 돌리기
- 가슴 앞에 손바닥 모으고 마음 구석구석 닦아보기
- 왼팔 펼치며 “깨끗하게”, 오른팔 펼치며 “맑게”
- 양팔 펼치며 점프, “자신 있게!” 구호

옛날에는 정돈되고 트여 있는 경작지가 많지 않아 숲은 어둠이나 혼돈, 불안정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평화와 치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평온한 시간을 갖기 위해 산책을 나오셨을 텐데요. 가벼운 산책과 낮에 햇살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을 만들고,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된다고 해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각자 산책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으로 다섯 분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분들께 제가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나는 한 마리 ○○○다.”

가정하고 산책길에 마주치는 인상 깊은 자연물 한 개의 색깔, 모양, 이름, 장소를 기억해 오세요. 사진을 찍어 오셔도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자연물 찾기(예시)

두 번째 그룹 분들께 제가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꿈의 서재에 있다. 나는 한 권의 ○○○다.”

가정하고 '열린 서가'에서 아무 책이나 골라 아무 페이지나 펼쳐 한 단락을 읽으시고, 그 책을 가지고 오세요. 사진을 찍어 오셔도 됩니다.



책 속에 떠오르는 문구 찾기(예시)

자, 지금부터 20분 뒤에 여기 벤치 앞으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20분)

자, 모두 눈을 감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 대표로 한 분만 골라 온 자연물의 모양을 자유롭게 묘사해주시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자연물이 무엇인지 그려보고, 아시겠으면 소리 내 맞춰주세요.

두 번째 그룹에서 대표로 한 분만 골라 온 페이지를 낭송해주시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목소리의 주인공을 그려보고, 어떤 인물인지 상상해서 말씀해주세요. 기억나는 아무 단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듣고 감각하고 기억한 것들은 금방 잊히고 또 지나가지만, 저 숲에 생명들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저 책장의 책들처럼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언젠가 꿈속에서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인상이나 기분에 따라 꿈의 의미와 상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서 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꿈을 꾸시고 오늘 밤도 숙면 취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원 입구를 들어오면서 돌비석에 쓰여 있는 시비를 읽으신 분이 계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단심가>와 <백로가>가 나란히 적혀 있는데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 시조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간밤에 흉흉한 꿈을 꾸어 아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말리며 불렀다는 노래라고 해요. 실제로 다음 날 정몽주는 한양에 가 이성계에게 피살됩니다.

이렇게 꿈은 우리에게 앞날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같이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는 게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백로는 3급수나 논밭에도 가는데 몸단장을 열심히 해서 항상 깨끗한 자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맑은 삼청공원에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길 바라면서,

우리도 매일 산책을 통해 머리, 마음, 몸을 열심히 단장하여 까마귀가 아닌 백로로 살아갑시다.



삼청공원 내 <단심가>와 <백로가> 시조가 적혀 있는 시비 ©김홍섭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숲해설가 이윤이입니다.

섬나라였던 제주가 고유한 원주 문화를 만들며 번성하고, 탐라라 불리며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조선에 와서야 병합된 하나의 자치국이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화산섬 제주를 물 위에 세워진 왕국, 돌에 깃든 정신과 문화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돌문화공원은 제주를 찾은 사람들에게 제주의 자연이 만들어낸 원시적인 생명력과 신화의 상상력을 전승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을 기획하고 조성한 ‘자원’ 백운철 단장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 평생에 걸쳐 발굴하고 수집한 약 2만여 점의 나무뿌리와 돌 수집품을 탐라목석원에서 이곳으로 무상 기증하였습니다.



돌문화공원 내 제1코스, ‘제주돌박물관’

여기 그의 말을 옮겨봅니다.

“후대에 보여줄 역사의 흐름을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담으려 합니다. 민속, 신화, 역사는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입니다. 모두 한 줄기이고 제주에서 그 핵심은 바로 돌입니다. 여기서는 돌 위에서 삶이 이뤄지고, 돌 위에서 죽습니다. 따지고 보면 밤하늘의 별도 돌이고, 우주 자체가 돌입니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제주를 반도의 단군 건국 신화와는 다른 창조 여신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슬을 통해 전해온 ‘설문대할망’ 설화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거인여성 창조신화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입니다.



돌문화공원 내 제1코스, ‘설문대할망 계단’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 내 '설문대할망' 안내석에 따르면,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는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 이 할머니는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보려 하였다. 제주도 용담동에 있는 용연이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 해서 들어서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그만 풍덩 빠져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물장오리가 밀이 터져 한정 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민속학자 현용준)



돌문화공원 내 제1코스, '설문대할망' 안내석

하지만 이곳 돌문화공원은 거구인 설문대할망이 흙을 퍼 나르면 땅이 세워지고, 치마폭에서 흘린 것이 오름이 되고, 오줌을 누인 곳이 패여 바닷물이 들어와 섬이 되는 유희적인 창조신화보다는, 흥년에 아들들이 오백장군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솔으로 들어가 죽이 된 비극적인 모성의 신화를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관람을 이끌고 있어 아쉬움이 듭니다.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 내 '오백장군' 안내석에 따르면,

“한라산 서남쪽 산 중턱에 <영실>이라는 명승지가 있다. 여기에 기암절벽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는데 이 바위들을 오백나한 또는 오백장군이라 부른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설문대할망이 아들 오백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다. 어느 해 몹시 흉년이 들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백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더 죽술에 빠져 죽어버렸다. 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떠먹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정말 죽맛이 좋았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막내아들이 죽을 먹으려고 솔을 쪄다가 큰 뼈다귀를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됐다. 막내는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을 먹어 치운 형제들과는 함께 못 살겠다면서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서 바위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본 형들도 여기저기 들어서서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를 그리며 한없이 통탄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버렸다. 이것이 오백장군이다.”  
(민속학자 김영돈)



돌문화공원 내 제1코스, '오백장군' 안내석

두 열로 늘어선 바위들을 지나 마치 신화 속으로 들어서는 길을 표현한 돌문화공원의 첫 번째 코스, 신화의 정원 길목에서 마주치는 '모자상'을 보십시오.

둥근 바위가 웅크리고 앉아 작은 바위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모자상'이라고 옆에 표지석을 세워주니 영락없이 바위는 위대한 어머니와 아들이 됩니다. 이름이 형상을 결정짓습니다. 이렇게 안고 포옹하는 한 광물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중 아들 하나로 연결됩니다.



돌문화공원 내 제1코스, '모자상'

어두운 방 안에 용암석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같다 하여 많은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기암은 촛농이 떨어지는 촛대 같기도 하고, 주무르다 만 진흙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왔으므로 이 형상은 명백한 어머니와 자식으로, 둘 사이에 사랑의 형상으로 다가옵니다. 벽에 강조된 그림자 실루엣에서 이 모성의 신성함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돌문화공원 내 제1코스, '어머니의 방' 내부

이 모성의 신화가 극대화된 신화의 정원 내에 있는 용암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보겠습니다.



돌문화공원 내 제1코스, '어머니의 방' 입구

이렇게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 코스에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물로 만든 보행등도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남녀 형상으로 나뉘어 가는 숲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돌문화공원 내 제1코스, '설문대할망' 보행등



돌문화공원 내 제 1코스, '오백장군' 보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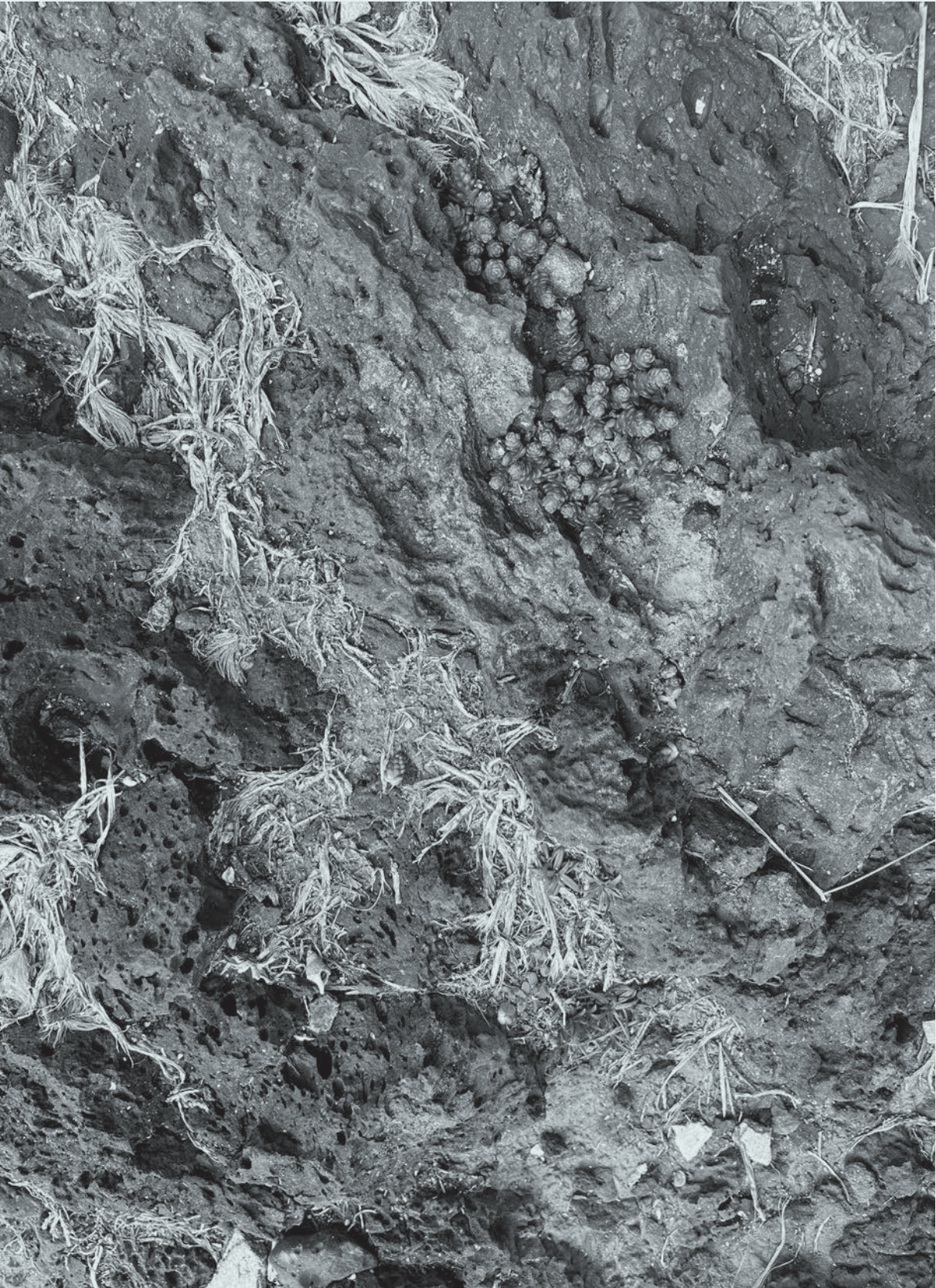
이 밖에도,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물장오리를 상징한 연못,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상징탑, 설문대할망계단, 하늘연못, 어머니를 그리는 선돌, 죽술을 상징한 연못 등을 마주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돌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돌은 깎이고 마모되고 구르면서 시간의 흔적을 응결한 입체입니다. 이야기도 전해지고 덧대어지면서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인상을 담아 변형됩니다. 진행 중인 시간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유롭게 돌문화공원을 둘러보시면서, 돌조각품들을 여러 각도, 다른 면에서도 한번 보시고, 또 동선을 달리 걸으면서,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돌의 상징과 이야기를 맘껏 상상하고 창조하고 각색하면서, 작은 돌 위에 더 작은 돌맹이를 올려놓듯, 흐트러트리듯, 각자의 추억을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유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양꽃 길냥이 때 울음소리에  
 께다. 한 마리가 우니 나머지  
 냥이들이 더 길고 날카로운 소리로  
 서로 위협한다. 올 때마다 보던  
 녀석들이겠거니. 하얀 몸에 오드  
 아이, 한 눈은 에메랄드빛이고  
 나머지 눈은 호박색이던 녀석.  
 제주에 어울리지 않게 이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놈일까. 그렇담  
 생긴 것과 다르게 야생적이다.  
 우아하게 생긴 놈이 저렇게 날것인  
 소리를 낼 수 있다니. 함부로 혀를  
 끝끝하며 가까이 와보라고 방정 편  
 모양. 곁에 치즈 냥이랑 남매라고  
 했는데 그 두 놈이 붙은 걸까. 이미  
 새끼들과 떠났을까. 아직 만나지  
 못한 놈들이라면 내일도 우는 소릴  
 들을 수 있었으면. 갈 때까지 보지  
 않고 소리만 들어도 좋겠다. 빈 새벽,  
 운동장을 활쫓는 소리가 상쾌하다.  
 도착해서 맞는 두 번째 아침. 흰 눈  
 이름은 목화, 노란 놈은 포켓.

창 쪽으로 책상을 옮겼다. 이른  
 봄이라 운동장 나무들의 형광  
 연둣빛을 보는 것이 싱그럽고,  
 여리고 빠죽한 잔디들이 귀엽다.  
 마을 수호목인 팽나무에서  
 몇 해인지 모르게 낮을, 올해  
 이파리들을 보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이다. 지나칠 때마다 어르신께  
 인사하듯 단정해진다. 대책 없이  
 녹음이 짙어지면 다 같은 농도로  
 익어갈 텐데, 지금은 매일매일  
 새것이고 날것이고, 4월 청보리 같은  
 목의 기운.

점심 특선 회덮밥을 먹고, 동네  
 구멍가게에 들러 두루마리 휴지를  
 사려는데 날개가 없다고 그냥 하나  
 주신다. 곧 캔과 유리병 마신 것들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느라 분주하겠지.  
 잔잔한 소비는 부끄럽고 내 몸은  
 쓰레기 통로다. 멧쩍은 마음에  
 애플 쿠키 박스를 집는다. 더 사는  
 귀여움.

산양꽃 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텃밭에 대해 질문한다.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감추며 남의 것은 탐내지  
 않겠다는 배려. 널린 게 땅이고  
 상추고 썩갠데 뭣하러 쳐브며  
 모종을 사려 하나고, 작업실에  
 있다가 심심하면 나와 거름이랑  
 물이나 주라고. 제철이 가기 전에  
 부지런히 따서 먹으면 될 일이라고,  
 정 원하면 숙소 앞에 화단에 웃자란  
 로즈메리나 캐다 심으라고 하신다.  
 모슬포 오일장 가서 고추장이랑  
 참기름을 사서 햇반에 쌈채 따다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야지. 매년  
 새로운 작가들이 오고 또 같은  
 질문과 포부를 어찌나 했을까. 또  
 봄이고 상생의 계절이니까. 각자  
 분주한 봄.

책을 좀 읽다 보면 오전이 가고,  
 한 끼 사 먹기 위해 근처 식당에  
 나갔다 오면 조미료 때문인지  
 졸리다. 리클라이너에 누워 한숨  
 자고 나면 오후 느지막이다.  
 낮잠 전에 친구에게 새 자연주의  
 화장품 프로젝트를 위한 콘셉트를  
 전달받는다. 슬로진 및 태그라인,  
 아이디어션, 업계에서 쓰는 말투의  
 정의부터 익혀본다. 도시에서  
 떨어져 멀찍이 다시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 중간을 빼고 원료와  
 생산자를 덧붙이는 작업 같아  
 즐겁다. 있는 데서 없음을 예쁘게  
 보는 것. 이상한 심보지만 늘 그래.

친구에게 오늘 책에서 본  
 ‘에코소피아(Echosophia)\*’라는  
 단어를 건넨다. ‘생태적 지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같이 대지에  
 서서 외치는 행동하는 예지자가  
 되자고. 함께 강연 들었던 선생님의  
 글이었는데, 알 만하니 알 만하다.

슬로진이 브랜드의 비전, 태그라인이  
 가고자 하는 세부 방향을 얘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각자가 공부하고  
 고심하는 곳에서 이 지혜를 쓰고  
 있음을. 지성이 쌓이면 자비가  
 따르게 마련이라 공부하면 할수록  
 선하게 나누고 싶어진다고. “사주는  
 시간적 개념이고 관상은 공간적  
 개념이라 우리는 얼굴에 시공의  
 주름을 쓰고 있다”라는 한 지성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 친구에게도 보냈던 한 단락, 미국  
 오두막에서 살았던 수필가 할머니가  
 티브이에서 늙은 흑인 벽돌공이  
 정부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가서 그 마을 전체를  
 짓고 기술을 가르쳤다는. 다 늙어  
 자기 기술이 쓰이는 것과 강국이  
 베푼 상상력이 하나의 우화같이  
 느껴져 방송을 보며 울었다는 일기.  
 그 수필을 번역한 시인의 얼굴과  
 나란히 곁친다. 연이은 늙음과 베푼.  
 느지막이 깨달아 나누고 베푼기  
 바빠진 노후. 메이 사틴의 『혼자  
 산다는 것』\*\*을 통해 여전히 늦고  
 세상을 돕지 못하는 자기고립적  
 상태, 작가적 비애가 전해져  
 이곳에서 나도 울컥.

내가 하는 일도 이런 효용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결일  
 거야. 카톡으로 친구를 위로하며,  
 이별을 앞둔 지금 내 상황도 하나의  
 우화처럼 기억되기를. 마침내  
 만나고 헤어지고 교훈을 얻는 짧은  
 콩트이자 상상 속 이야기이기를  
 기도했다.

그사이 전시했던 공간에선 십  
 주년이 되었다며 참여 작가들에게  
 설문이 도착하고, 감흥 없던 대화와  
 피드백에 빠그덕거린 과거의 시간이  
 떠올라 멧쩍다. 지났다고 뭐든  
 기념해보려는 심보에 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메일을 달는다.

\*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이진경, 고미숙 저, 문학과경계, 2002)

\*\* 『혼자 산다는 것』(메이 사틴 저, 최승자 역, 까치글방, 1999)

또 다른 메일 한 통은 제주의 새 스튜디오를 방문해 3D로 작업실을 소개할 수 있느냐는 사업 제안. 명함을 주고받으며 곧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는지 염려했으면서, 막상 하려니 시작 미술가로서 내 작업실의 빈곤함이 떠올라 짜증이 난다. 뭘 펼쳐. 뭘 꾸며. 달랑 컴퓨터 하나인데. 아무래도 거절해야겠지. 친절하게 내일.

아직 천장형 에어컨에 최적 컨디션 모드를 가늠하는 중이라 리듬이 좋지 않다. 하던 걸 덮고 새신오름으로 걸기로 한다.

도착한 날 밤에 숙소 침대에 앉아 스탠드만 켜고 드라마를 보다가 전화가 울려 황급히 진동으로 바꾸고 받지 않았다. 작은 방에 길게 울리던 진동음. 가만히 멈추기를 바라던 불박인 내 시선. 그런 순간이면 새삼 깨달는다. 너와의 연결이 이토록 싫고 두렵구나. 지금 두려운 것은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움직이는 나를 들키는 거구나.

다음 날 통화에서 제주에 같은 밤 도착했다는 소식. 오자마자 이곳에 잠깐 들렀고 불 켜진 방을 하나 보았고, 어두운 산양꽃을 둘러보다 돌아갔다는. 카메라는 가져갔나, 운전은 익숙하냐, 그림이라도 그리고 뭐라도 열심히 해보라는 말. 며칠 전 자기는 다이빙하다가 의식을 또 잃었다는 얘기, 동쪽에 중국인 부부가 하는 식당에 왔는데 정말 맛있다는 정보. 아마 그런 말들을 얼굴을 보고 하고 싶었겠지.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나눴었지. 핸드폰 벨소리도 두어 번 들었겠지. 그만큼 고요한 곳이니까. 몇 개월 만에 가장 가까웠던 물리적 거리.

새신오름으로 가는 길에는 온갖 낮선 식생들. 온 이름을 겨울까지 알아갈 수 있을까. 일단 사진을 찍어둔다. 스마트렌즈로 돌려보는 부지런함이 겨울까지는 발현되기를. 꽃자왈 식생일지를 연말 전시로 발표해도 충분하다 구상하면서 오늘치 날씨와 걸음을 기록한다.

오늘 제주에도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고 먼지가 자욱한 산방산 풍경을 내려다보며 중국 같다고 생각한다. 사방으로 퍼지는 먼지 입자. 그다지 찾지 않는 새신오름을 15분 만에 정복한다. 연고 없는 무덤들. 오후 4시 비행기로 너는 떠났고 그 시간 오름을 걸으며 안도하는 나를 보니 아직 우리는 멀고 이르다. 1시 11분이 아니고 4시 44분이 아니다. 풍랑을 맞은 나침반처럼. 아무 시간대나 빙글빙글 돌고 있는 언덕들.

내일 다이소에 가면 칸칸이 식물 채집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하나 사야지. 뭐든 하나씩 채워봐야지. 어차피 미안함은 끝도 없을 테니, 새 칸에 아무거나 귀하게 담아봐야지.

이전 정말 오랜만에 쓰는 일기다. 이 페이지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내일은 기네스를 닮은 지네가 기네스 냄새를 맡고 문틈으로 찾아온 이야기.





도시로 돌아와 지네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들러줬다. 현관에 들어온 지네 사진을 보여주고 한 뺨은 더 되었다는 과장을 조금 붙여서. 몸서리치는 모습들이 한결같고, 지네가 길인지 흉인지 되물으며 대화에 가지치기를 즐겼다. 머리인지 꼬리인지 빨간 집게와 검은 외피, 여러 개의 누런 다리가 마치 독일 병정 같았다고. 그날 기네스 캔을 마셨고 현관에 캔을 짜부라트려놓았는데 그 냄새를 맡고 들어온 것 같다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먹은 건지, 취한 건지, 술과 빵을 좋아한다는데, 지네의 죽음이 기네스를 마시고 행귀두지 않은 내 불찰은 아닐까. 쌍으로 주로 다닌다는데 나머지 한 마리가 방에 남아 있으면 어찌나. 폭신한 걸 좋아한다던데 베개 사이 내 목덜미를 물진 않을까, 여러 차례 목덜미를 긁적이며. 대화 사이에 어색함을 떨치면서. 상대의 공감과 두려움에 묘한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런 지네 이야기를 한참을.

제주에서 비가 올 때 영또 폭포란 곳을 가보란 추천을, 유튜브 유명 프리 다이버 커플의 채널에서 메모를 해놓는다. 젊고 자연스러운 건강함이 돋보이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다. 자연은 저들에게 패션 같다. 잘 걸친 옷처럼 어긋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런 것을 따진다는 게 자연에게나 젊음에게나 코웃음 칠 일일 것 같다. 살아 있는 동안이나 떠벌리는 자연 예찬, 환경 위기들. 잠시 왔다 가는 건 인간이니까. 평소에는 물줄기가 없다가 큰비가 내리면 폭포를 만든다는 곳. 영-또 폭포. 인간도 자연 앞에 영똥한 잠깐의 현상 같은 건 아닐까. 잠깐 뜨는 무지개 같은. 잠깐의 폭포 같은 젊음. 있을 것 같지 않은 그곳 이름을 메모하고, 마치 비 오는 날 튀어 나갈 개구리처럼.

해녀학교에서 인턴과정을 밟고 있다는 미대 출신 애기 해녀 다큐멘터리를 봤다. 제주로 입도해 약혼자를 만났고 해녀학교에 입학해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해녀삼촌에게 혼이 나도 높고 맑은 목소리로 “못하겠어요. 안 돼요. 다시 보여주세요, 삼촌!” 갈갈 웃어버리는 그녀, 명랑함 뒤에 잘해보고자 하는 두려움과 조급함이 보여 긴장되었다. 해녀삼촌에게 직접 그린 초상화를 떨리는 손으로 선물하는 장면, 파마머리에 주름까지 다 살려 그려줬다며 이런 선물은 처음이라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해녀삼촌. 서로에게 소중한 걸 나누는 엄숙함이 닿을 수 없는 섬 같고 맹세 같다.

작가 생활만 해서는 별이가 유지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밭이든 바닷물이든 나가서 일한 만큼 돈을 만들 수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덕다이빙도 허리에 소라 자루를 이는 것도 어색해 보이는 길고 가느다란 애기 해녀. 저 희고 긴 얼굴과 손가락은 지난 세월 도시에서 미술을 치이게 했을 것이다. 육지에 가족들은 행복하면 됐다 마음을 내려놓았을 거다. 일 년에 한두 번 그 마음 들여다볼 거다. 언젠가 마을 해녀 공동체 삼촌들 얼굴을 모두 그려보고 싶다는 소망. 물질이 끝나고 공용 목욕탕에 남아 청소하고 자전거를 타고 굴수확창고를 개조한 집 겸 작업실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이, 그 후들거리는 긴 다리가 당차고 불안해 보인다.

다치지 말기를, 지치지 말기를.  
나에게도 그녀에게도 응원한다.







6월 방문은 지난달보다 제주에 사는 사람들과 많은 만남, 걸음, 음식, 이동 거리를 갱신했다. 동생차를 빌려 탁송해 왔고 친구와 함께 제주에 사는 지인들을 찾아가 떨어져 지낸 시간의 틈을 수다로 메웠다. 산양에서 삼 일, 성산에서 삼 일. 친구의 가족 같은 친구, M언니(친구는 엄마라 부른다)와 K아저씨(친구에겐 아빠)를 전설처럼 만났고, M언니의 고가구와 작은 정원, 꼬리가 말린 고양이들이 있는 성산 주택 옆에 펜션을 빌려 나란히 두 밤을 잤다.

이십 대 때 우리는 배낭여행을 같이 하고, 기차에서 버스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많은 밤을 잤었다. 오래된 세월만큼 함께 아는 공통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큰 기쁨이 되어준다. 우리는 함께 마련한 이 시간에 감사함을 나눌 줄 알고, 현재를 과거와 미래에 중첩해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공상을 나누는 늙고 멋진 우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친구는 산양꽃에 내 작은 방을 채워준 첫 방문객이다. 우리는 몸을 관처럼 눕히고 자연이 무궁무진한 밤을 감각한다. 경계 없이 대화를 이어간다. 찾아부터 유체 이탈까지. 따로도 걷고 같이도 걷고 간장백반과 갖김치에 행복하고 반딧불 축제 행렬 뒤에서 속삭이며, 제주를 서에서 동으로, 오해나 불만 없이 지금을 나눈다.

신문사에 다니는 동문인 J를 이십 년 만에 만났다. 점심시간에 나온 J는 앉자마자 어제 만난 사람처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 무슬림 여인이며, 곧 결혼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파리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한다. 태어나 돌아온 제주도 지겹고, 신문사도 지치고, 삼 년만 파리에 살아보고 싶다고. 저번 달 그녀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고, 곧 그녀가 한국에 오기로 했다고 한다. 그녀는 병원 의사이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들이 첫 데이트에서 겪은 울퉁불퉁한 사건들과 가상 같은 여친 이야기에 이게 다 뭔가 싶다.

내가 묻고 듣고 싶던 기자로서의  
제주에 관한 인사이트, 숨은 정보,  
자연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굳이 왜 돈을 내고 장비를 이고  
지고 다이빙을 배우려고 하나고.  
자기는 휴가마다 방콕에 가서  
놀았다는, 바에 가서 음악 듣고,  
그렇게 보내다 제주로 돌아온다는,  
뭔가 의문스러운 이야기. 맥락  
없는 모험 같은 J의 미래 계획을  
제주 한복판에서 친구와 함께  
듣는다. 함께 들어 다행이야.  
파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친구는  
국제결혼의 어려움, 유럽에서  
무슬림의 신분 같은 것들을  
조언한다.

멀리 살아온 우리에게, 연락 없이  
지내온 우리에게, 가까운 곳은  
어디이고 먼 곳은 어느 만큼일까.  
시공간을 마구 구부려 접었다가  
한 번에 튕겨나간 것처럼 J는 너무  
이곳에 오래 살았던 걸까.

웬지 모를 확신으로 말려본다.  
너의 미래가 보인다고. 너무 어려운  
길인 것 같다고. 이십 년 만에  
만나 단호하게. 서로 상처가 없는  
지금 빠져나오라고.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로코 여자의 성품과  
어려움을 내가 함부로 떠벌릴  
수 있나. 가늠할 수 있는 공통의  
감각이라는 게 과연 있나. 너의  
온라인은 우리 관계의 불안함보다  
더 가깝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사랑일 수도.

J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듣긴  
했지만 안 듣기를 선택한 거야.  
정해진 미래에 그는 이미 당도해  
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지난  
이야기를, 네 뭉친 막연한 후회를,  
하필이면 오늘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덜 아프기 위해,  
덜 암담하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어쩌다 지금 찾은 제주에서  
옛 친구와의 늦은 한때. 바쁜  
점심시간에 급만남.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중  
력  
과  
은  
총  
\*

시간의 압박을 스스로 허용하기.  
주체를 세우고 깨진 상태를 마주하고  
겸손하고 상냥하며 솔직해질 것.  
말은 줄이고 미소는 늘리고 늘 움직일 것.

변명과 자기연민으로부터 깨어날 것.  
몸과 정신의 연결성.  
영혼에 자유로움.  
나쁜 습관들을 끊어낼 것.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위안을 만들지 않기.  
비워내기.  
위안으로 채우지 않기.

왜 화가 나 있는지 실체를 보기.  
이유를 들어주고 스스로 돕고 일으키기.

억울한 기분을 떨쳐내기.  
말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묻고 기록하고  
대답할 것이다.  
돌파할 것이다.  
비겁하지 않게.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멀리 경경 짓는 들개처럼.  
긴 장마 끝 열과 성을 다해 우는 매미처럼.

\* 시몬 베유, 『중력과 은총』, 문학과지성사(2021)

올해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죽은 듯 건디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중력과 은총.  
내려가는 힘과 고양하려는 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지난 시절에 주변 사람들의 꿈을 너무 살피지 못한 탓이다.  
내 욕망에 충실해 네가 소망하는 것들을 살피지 못한 책임.

너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내 욕심이다.  
너의 죽음을 인정하라.

슬퍼하되 인사하라.  
다시 태어난 너를.

감사히 떠나보내라.





제주자원식물연구소에서 화장품 천연 원료를 채취하고 개발하는 대포님과 산양 꽃자왈을 탐방했다. 연구소 박사님 같은 분이 나오시리란 예상과 달리, 연세가 지긋하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야 하는 어르신이 사모님과 함께 나오셨다. 제주로 이주한 지 이십오 년 차이며, 프리랜서인 너희 예술가들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다가 숲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제주 천연 식물들을 채집하고 연구, 납품하면서 가족 사업체를 일구었다고 하셨다. 제주 조릿대와 숲, 여우구슬, 미국자리공 등을 원료로 개발한 화장품과 신약 산업 관련해서 서너 개의 특허를 가지고 계셨다. 몸이 불편해진 지금은 주로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부에서 석사를 하는 아들이 학교 연구실에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박사님이라기보다 현대의 약초꾼에 가까워 보이는 분이였다.

꽃자왈은 한라산 숲이나 강원도를 비롯한 타지역 숲에 비해 신생 숲에 가깝고 제주도는 여전히 살아 있는 휴화산이라 강조하셨다. 우리 몸에 이롭게 쓰이는 식생 이야기. 여러 증상에 효과 있는 약초들과 민간요법들을 소개해주셨다. 안티푸라민의 원료로 쓰이는 녹나무, 마데카솔의 원료이자 호랑이풀이라고도 불리는 병풀, 와인에 소량 들어가기도 한다는 구상나무.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남쪽 해변과 숲에 자라는 황철나무. 꽃자왈에 제일 많은 종가시나무와 산수국. 송학 덩굴, 까마귀쪽나무, 자귀나무.

그중 독초로 알려진 유해식물 미국자리공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외래식물로 오래 자리 잡아 이제 귀화식물이라는 미국자리공. 흑자색 열매가 염료로도 쓰이지만, 동물들도 독인 걸 알고 먹지 않는다는, 토착 식물과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초.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나쁜 식물이란 없다며 시간을 거쳐 자연은 스스로 안정화를 찾아가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사람 아니겠냐 하셨다. 그래서 자원식물연구소에서는 주로 건설 현장에 가서 그 땅에 심겨 있다 곧 사라질 식물들을 수거해 온다고 하셨다. 자연에서 덕을 보기에 좋은 약초들을 주변에도 많이 나누려고 하신다고.





집에서는 주로 차로 끓여 마시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코카콜라의 비밀  
원료가 미국자리공 같다고 하신다.  
팸시와는 다른 마지막 그 씹쓸한  
끝맛을 자리공을 차로 드실 때  
느끼셨다고. 한번은 자리공 소량을  
담에 걸린 손님에게 가루로 내어  
수제비에 섞어 만들어 먹였더니  
담에 걸린 등이 첫날엔 절반으로,  
둘째 날엔 또 그 절반으로  
갈라지더니, 다음 날에 몽친  
것이 전부 사라지더라는 이야기.  
광대버섯을 모르고 먹은 단체여행객  
이야기, 사약의 재료였던 유도화로도  
불리는 협죽도, 우울과 불안에는  
약이 없지만 독을 조금 먹여  
우선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식물을 찾아다니면서 숲에서 겪으신  
기묘한 경험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졌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서로 비벼대는 소리를 귀신 소리인  
줄 알고 줄행랑을 치다, 그렇게  
도망치면 평생 두려움으로 남을  
것 같아 다시 돌아가 확인했다는  
이야기. 식물 공부 말고도 명상을  
깊이 하시면서 도파민 과다 분비의  
각성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이렇게  
몸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었다고,  
약초꾼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누가 믿겠냐고 웃으신다.

한 구간에 이르러 향긋한  
향을 느끼고 어느 식물인지  
두리번거리는데 선생님께서  
냄새를 추적하시더니, 맞은편 어느  
여성분의 지나친 향수 체취 같다  
하여서 모두 헛웃음을 짓는다.  
샤넬과 아모레퍼시픽에서의 방문 때  
모델 같은 직원들의 옷차림도  
들으며 점심을 넘겨 꽃차알 투어를  
마친다.

식물은 평생 고정된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호르몬을 통해 교감하고,  
고도로 발전된 군사로 연결된  
뿌리 네트워크를 이루고 산다는데,  
저분은 어쩌면 오래 식물을 찾고  
들여다보고 캐고 으깨고 추출하면서  
식물에 가까운 감각 기관을 기르신  
것만 같았다.

식물인가? 코마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러고  
보니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몸은  
고정되고 잠들어 있지만 듣고 보고  
말고 숨 쉬는 식물인간의 감각은  
어떤 걸까. 읽고 쓰고 말하기를  
포함한 인지기능을 멈춘 인간. 그  
안에 기억은, 미련은 남아 있을까.  
육신에 혼이 머물러 떠나지 않는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는 상태를  
상상해본다. 마치 휴화산처럼 그  
안에 마음이 들끓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딘가로 전하고 있는  
거라면.

이십 년 넘게 수액에 의지한 채  
요양원 병상에 누워 있는 외삼촌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보호자로  
반평생을 사시는 외숙모. 출장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십  
대에 식물인간이 되어 환갑을 넘긴  
구 남매 중 막내 삼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빠의 사고를  
겪은 조카는 어느새 결혼해  
외삼촌에게 요양원에서 첫 손주를  
보여드렸다. 중력을 거스른 몸.  
머리와 뿌리가 떠 있는 몸. 그런데도  
순환하는 혈액과 산소도, 노화하고  
있는 세포와 의학의 힘으로  
연명하는 생명. 외삼촌은 자기  
유전자가 손주를 통해 이어짐을  
아셨을까. 전해 들었을까. 어떤  
떨림이 있었다면 아기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일까.

선생님은 한 발씩 내딛으시고 말씀  
중 허공을 자주 보시고 길가에  
풀을 보여주느라 연신 쪼그려  
앉으신다. 사모님은 선생님이 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몸을  
일으켜야 할 때, 잠깐 목을 축이실  
때, 이야기가 끊길 때, 농담을  
덧붙이시며 선생님 걸을 맴돈다.

꽃자왈의 식생이 사실 다양하지  
않다고 길가 논밭을 따라 더  
걸자며 이런저런 길에 핀 야생화와  
초본식물들을 보여주셨다. 망초,  
쇠비름, 모시풀, 애기땅빈대, 비단풀,  
부처꽃, 여우구슬, 파리. 모르고  
지나치면 잡초이고 알고 쓰면 약이  
되는 약초학. Herbology가 아닌  
Herblore. 약초를 통한 구술생애사.  
생태적 농담.

농약이 처진 긴 밭길에서 우리는  
주섬주섬 몇몇 들꽃들을 수집한다.  
스튜디오에 가져다놓으면 예뻐  
야생의 조각들. 다음엔 공장과  
연구소로 초청을 부탁드리며 감사  
인사를 나눈다. 인사 끝에 우리는  
적절한 나이대의 걸음과 제 속도로  
따로 점심을 먹으러 헤어진다. 두  
분도 밭길을 따라 차로 천천히  
이동하실 거다. 조각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시고 아마도 맥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고 긴 낮잠을  
달게 주무실 것이다.







고  
라  
산  
니  
호  
와

2023년 9월 4일

연산호는 바다 동물이다.  
태어난 자리에서 뿌리내리고 촉수를 통해 세계를 감각하는 동물이다.  
온대와 아열대를 아우르는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볼 수 있다.

소프트 코랄인 맨드라미류의 연산호가 최근 기후위기로 돌산호로 대체되어간다.  
하드 코랄. 딱딱한 골격. 방어력.  
물 안 동물.

고라니는 육지 동물이다.  
워터 디어. 습지 생물.  
제주에는 고라니가 없다.  
영덩이가 하얀 노루가 있다.  
백록담의 어원.

요즘에는 대만 꽃사슴 개체가 한라산에 등장한다.  
천연자원 식물에 잎이나 줄기를 먹어치우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노루의 번식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신화 속 동물.

섬의 위상.  
한반도에 고라니는 중국과의 대륙설을 입증하며 대표 유해동물이 되었다.  
고라니의 천적은 로드킬을 일으키는 자동차다.

고라니 울음소리.  
사람 비명소리.

성나고 꿈꾸는 꽃.  
2023년 제주.

그 부테스\*  
매초 죽는다  
초와 초 사이에  
내쉬고 들이마시고  
초 단위로 떠내려온 머리

시선이 타들어간다  
눈동자에 흑점  
반듯한 척 직립인 척  
소매 속에 가둔 물결  
웃기엔 굵은 소금  
척추가 절여졌다

혀뿌리를 들어 안구를 더듬는  
일 초 이 초 사 초...팔 초

팔 젓지 않을 테야  
발 구르지 않을 테야  
네가 보고 있으니

물이 듣는다  
코를 움켜쥐고

나를 민 건 나지  
양수에서부터  
스룩 졸도 놓았지  
중력에서부터

프리 폴

왼쪽 귀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오른쪽 귀가 왼쪽으로 흘러  
폐가 쪼그라들고 뇌가 젓는  
일 초 이 초 사 초...사십팔 초

일그러진 얼굴을 물결이 달랜다  
한결같다 너울처럼

안도 밖도 춥다  
안이 떨어 밖이 안아주는가  
밖이 열어 안이 울어주듯이

이 물살은 다신 오지 않을 것이다  
제 몫을 다했다

해 마

이 멀고 앞은 곳에서  
너는 나락처럼  
바닥으로





사랑의 족

고라니

사슴과에 속하는 포유동물. 지방에 따라서 ‘보노루’ 또는 ‘복작노루’라고도 부른다. 학명은 Hydropotes inermis argyropus HEUDE이다. 고대형 노루의 일종으로서 몸이 가장 작다. 고라니의 특징은 견치(犬齒: 송곳니)가 송곳 모양으로 특별히 길게 자라서 끝이 구부러져 있으며, 입 밖으로 나와 있는 점이다. 이것으로 나무뿌리를 캐어 먹는다. 사향노루의 견치보다 좀 굵고 짧으며, 암컷의 견치는 수컷보다 좀 작다. 또 암수가 다 같이 뿔이 없는 것도 이 종류의 특징이다. 체모는 거칠고 굵으며, 목과 허리의 털이 길고 등쪽 색채는 담갈적색이다. 털의 밑부분은 회백색, 다음은 흑갈색·적갈색의 순이다. 체하면(體下面: 배의 유두가 있는 부분)은 띠처럼 보이는 백색이며, 목은 등쪽보다 담색이고, 어깨·다리·꼬리는 밤갈색이다. 어린 새끼들은 몸에 세로로 줄을 지어 흰 점이 있으며, 몸 후반부에 더욱 많다. 등쪽 털은 어미보다도 부드럽고 밤색이다. 몸통 길이 110~120cm, 꼬리 길이 4~8cm, 뒷다리 26~27cm, 귀의 길이 9~10cm이다. 유두가 4개 있으므로 고대형 노루임을 입증해준다. 고라니는 주로 금강산 일대와 오대산·설악산·태백산을 거쳐 경주와 포항에 이르는 태백산맥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높은 산에 연결된 산기슭에 서식하므로, 들에 가깝고 나무가 적당히 무성한 남향이나 평지 버들밭, 그리고 역새가 무성한 황무지, 또는 산기슭 가까운 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다. 그러므로 고라니를 잡기 위해서 물이를 할 때는 목을 산의 능선이나 산허리에 잡아야 한다. 고라니의 성격은 보통 노루와 달라서 크게 놀라지 않으며, 토끼와 같이 귀소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있던 곳을 멀리 떠나지 않고 되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민간요법에서 고라니의 피를 사슴피와 마찬가지로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또 고라니의 뼈를 10시간 열탕으로 끓여 즙액을 마시면 신경통,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있다. 고라니 피나 뼈에 관한 속설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우리나라의 분포지역은 목포·안주·하동·단양·광릉 등지였으나, 요즘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꽃자왈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해 있는 제주도 한라산의 암괴지대. 제주도의 한라산 동부와 서부, 북부 사면지역에는 꽃자왈이라는 지대가 널리 분포한다. 꽃자왈은 점성(粘性)이 비교적 큰 아아(aa) 용암류가 다양한 크기의 암괴로 부서지면서 만든 미기복(微起伏)이 많은 암괴지대다. 토양층이 얇은 황무지(자갈)를 뜻하는 ‘자왈’과 나무숲을 의미하는 ‘꽃’이 결합된 용어다. 꽃자왈을 구성하는 암괴와 미기복은 지하수 함양(涵養)은 물론 보온보습 효과를 일으켜 열대식물의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식물의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숲을 만들고 있다. 꽃자왈은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라산과 해안지대를 연결하고 있어 생태계의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이곳에는 이끼류, 양치류, 초지성 식물, 화초류, 수목(침엽수, 활엽수), 습지(물웅덩이)가 발달하여 방목 중인 가축들이 물과 먹이를 확보할 수 있고 풍우설(風雨雪)을 피할 수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목축을 위해 중요한 공간이었다. 꽃자왈 지대는 토양 발달이 지극히 미약한 곳으로 아아 용암류라고 불리는 특이한 용암류로 뒤덮여 있다. 아아 용암류는 표면이 거친 암괴모양 용암을 말하는데 이 아아 용암지대가 꽃자왈 지대를 이루고 있어 아아 용암은 꽃자왈 용암이라고도 부른다. 꽃자왈 용암이 분포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서부지역 한경-안덕 꽃자왈 지대와 애월 꽃자왈 지대, 동부 지역 조천-함덕 꽃자왈 지대와 구좌-성산 꽃자왈 지대로 구분하고 있다. 용암은 그 특성상 토양 발달이 빈약하여 선구 식생이 정착하기 어렵고 식생의 천이 속도도 느려 지금과 같은 숲으로 발달하는 데 긴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꽃자왈은 암괴로 이루어진 장소이므로 땅이 척박하여 경지로 이용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방목에도 적절하지 않아 대부분 방치되어 덩굴이 엉클어진 자연림 지대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 꽃자왈 지대는 ‘제주의 허파’ 또는 ‘자연의 허파’ 등과 같이 인간의 허파에 비유되면서 ‘제주 생태계의 생명선’으로 강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꽃자왈은 과거 불모의 땅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지하수의 함양 기능을 비롯하여 한라산과 해안지역 사이의 환경적인 완충기능 그리고 조망을 중심으로 하는 위락 관광 자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넋들임

제주도에서 혼의 일부가 육체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하는 무속의식. 인간은 육체와 여러 개의 넋(魂)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15세 이하 어린아이는 이 육체와 넋의 결합이 불안정하여 조금만 잘못하면 넋이 이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넋이 이탈하는 계기는 높은 곳에서 넘어졌을 때,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등 위험한 상황을 만나 깜짝 놀랐을 때다. 넋이 빠져나가면 아이는 평상시와 달리 잠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 울기도 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며, 날이 지나면 안색이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어져간다. 이러면 ‘넋났다’라고 하여 넋이 나갔다고 판단하고 심방(神房: 무당)을 빌어 넋들임을 한다. 넋들임은 비넋(병이 낮게 해달라고 비는 작은 규모의 의례) 형식의 넋들임과 굿 형식의 넋들임이 있다. 비넋 형식의 넋들임은 간단한 기원 형식의 예로 평복 차림 심방이 떨어져나간 아이의 넋을 불러 그 육체 속에 들여넣는 것이다. 곧 넋이 떨어져나간 장소에 쌀그릇·물그릇 그리고 환자인 아이의 저고리를 올려놓은 제상을 차리고, 심방이 서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여 넋을 잃었는데, 삼승할마님(産神)께서 넋을 찾아 들여넣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빈다. 그 후 환자의 저고리를 두 손에 빌려 들고, “성은 무슨 씨 몇 살 마흔여덟 상가메 (정수리)로 초넋 돌아옵서!”, “서른여덟 중가메로 이넋 돌아옵서!”, “어 넋들라, 넋들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넋을 불러 저고리로 넋을 거두어 싸는 동작을 하고는 저고리를 환자의 머리에 얹어서 “어, 코—” 하고 소리를 내면서 큰 숨을 환자의 머리에 불어넣는다. 이는 정수리로 넋을 불어넣는 행위인 것이다. 다음은 환자의 이름을 세 번 불러 환자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여 넋이 돌아왔음을 확인하고 제상의 물을 세 모금 먹여서 들은 넋을 진정시킨다. 이로써 넋들임은 끝난 것이지만, 넋이 나간 사이에 ‘새(邪)’가 범접했는지도 모르므로 ‘새드림’ 제차를 첨가하여 행하고 끝을 맺는다. 굿 형식의 넋들임은 비넋 형식의 넋들임으로써 효험이 없을 경우 규모를 크게 하여 굿청을 차리고, 초감제·추물공연·넋들임·새드림·잡귀풀이·도진의 순으로 진행하는데, 그 중심 제차인 넋들임은 비넋 형식의 그것과 거의 같다.

이 닳뜰입은 우리 민족의 영혼관에 기초를 둔 치병의례로 시베리아와 오키나와의 샤먼의례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 그 분포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록담 전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백록(白鹿)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예부터 제주 지역 사람들은 한라산의 백록담에 산다는 백록(白鹿)은 신선이 타는 동물이라고 믿었다. 한라산은 원래 신선이 놀던 산이고, 신선들은 흰 사슴, 곧 백록을 타고 구경을 다니며 정상에 있는 백록담의 맑은 물을 사슴에게 먹인다는 것이다. 백록담의 이름은 이 백록에서 유래하였다.「백록담 전설」은 실수로 백록을 잡았으나 잘못을 빌고 살아남았다는 사냥꾼의 이야기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사는 김두익(남, 78세)이 구원한 것을 채록하여 1985년에 출판한 『제주도 전설지』에 실었다.
옛날 교래리 감발내(川) 근처에 안씨라는 포수가 살았다. 안씨는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았는데, 무엇이든 쓰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어느 날 한라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숲에서 사슴이 한 마리 내달리자 무의식적으로 칼을 빼어 사슴의 배를 찔렀다. 그런데 정신이 들어 살펴보니 백록이 죽어 있었다. 안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물라보고 대죄를 범했다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극진히 빌었다. 그래서인지 안씨는 죽지 않고 한라산에서 살아서 내려와서 140세까지 살았는데, 만약 정성을 다해서 빌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백록담 전설」은 우연히 잘못을 저질러 죽게 될 운명이었으나, 정성을 다해 빌어서 죽음을 모면하고 장수하였다는 이야기다.
한라산 백록담에는 신선이 살고 있고, 신선은 흰 사슴(백록)을 타고 다닌다는 신선 사상이 반영된 설화로서, 신성한 동물을 해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터부가 담겨 있다.

**산양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행정리.
산양이 산양리 북동쪽에 신서악(새신오름)이 있어 그렇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산의 남쪽이라는 뜻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면의 남동쪽 내륙에 위치하며, 2007년

8월 현재 면적은 6.32km이며, 총 188세대에 467명(남자 252명, 여자 21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총 면적 632ha 중 밭 292ha, 과수원 76ha, 임야 189ha, 기타 75ha이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감귤 및 하우스 감귤, 원에 작물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데, 감귤 소득이 전체 농가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은 보리·콩 등의 일반 작물도 재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허브농장과 산양목장이 있으며, 다른 마을보다 농경지가 넓어 편이어서 농가당 소득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마을을 남~북 방향으로 지나는 국도 16번 도로와 동쪽에는 지방도 1120번 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삼승할망본풀이**
제주도 무당굿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 산육신(産育神: 아기를 점지하고 돌보는 신인 삼승할망)의 내력담이다. 일명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 또는 ‘할망본풀이’라고도 한다. 기자의례(祈子儀禮)인 ‘불도맞이’나 삼승할망에게 축원하는 ‘아기비님’ 때 심방(무당)에 의해 불려진다. 현재 4편이 채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서로 비슷하다.

동해 용왕 따님아기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므로 용왕은 딸을 죽이려고 하였다. 왕비는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왕에게 딸이 인간 세상에서 삼승할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왕비가 굽히 딸에게 아기를 잉태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해산시키는 방법을 마저 가르쳐주기 전에 동해 용왕 따님아기는 석함에 담겨 바다에 띄워지고 말았다. 석함은 인간 세계에 닿게 되고 자식이 없는 임박사에게 발견되어 열려졌다. 동해 용왕 따님아기는 임박사를 따라가서 먼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임박사의 부인에게 아기를 점지하였다. 아기는 뱃속에서 점점 커갔지만 따님아기가 해산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낭패였다. 열두 달이 넘어가자 급한 겁에 임부의 겨드랑이로 아기를 꺼내려 하니, 아기와 어머니가 모두 죽게 될 판이다. 임박사는 이 억울함을 옥황상제에게 호소하였다. 옥황상제는 현명한 명진국 따님아기를 골라 삼승할망으로 보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두 처녀는 도중에서 만나 서로 삼승할망직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는데, 한이 없자 옥황상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하였다. 내력을 들은 옥황상제는 두 처녀를 보고 꽃 가꾸기 내기를 해서 이기는 자에게

삼승할망의 자격을 주겠다고 하였다. 두 처녀는 각각 모래밭에 꽃을 심어 가꾸었는데, 명진국 따님아기 꽃이 크게 번성하였다. 옥황상제는 경쟁에 이긴 명진국 따님아기를 삼승할망으로 임명하여 인간 세상에 가서 잉태를 주관하도록 하고, 동해 용왕 따님아기에게는 저승에 가서 아이의 사령(死靈)을 차지하는 구삼승할망이 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명진국 따님아기는 삼승할망이 되어 서천 꽃밭의 생불꽃·환생꽃을 차지하여 그 꽃을 가지고 분주히 돌아다니며 인간에게 잉태와 해산을 하도록 해주고 아이를 15세까지 키워주는 신이 되었다. 그리고 동해 용왕 따님아기는 아기에게 병을 주고 잡아가서, 저승에서 그 영혼을 차지하는 신이 되었다. 그리하여 명진국 따님아기는 삼승할망·생불할망·인간할망 등이라 불리고, 동해 용왕 따님아기는 구삼승할망·저승할망 등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본풀이는 꽃 가꾸기 경쟁에서 이긴 신이 산육신, 곧 ‘생(生)의 신’이 되고, 진 자는 죽음의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삶의 신인 이승의 신과 죽음의 신인 저승의 신이라는 대립 구조에서 삶의 신의 승리로 결말 짓는 산신신화(産神神話)이다. 삼신(産神)신앙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이런 유형의 산신신화는 아직 제주도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설문대할망 설화** (설문대할망 說話)
제주도의 거녀(巨女)인 설문대할망의 모습과 창조 업적·죽음 등에 얽힌 설화. 신이담(神異譚) 중 초인담(超人譚)에 속한다. 거녀의 이름은 지역에 따라 설문대할망·설문대할망·설명두할망·세명두할망 등으로 나타나고, 담수계(淡水契)편 『탐라지(耽羅誌)』등 문헌에는 ‘설만두고(雪慢頭姑)’라고 표기되어 있다.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단편적인 전설로 전승되고 있다.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는데, 키가 엄청나게 커서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가 현재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빨래를 하려면 관탈섬에 빨래를 놓고, 팔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발로 빨래를 문질러 빨았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側火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를 때에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조금씩 새어 흘러서

된 것이라 하며, 마지막으로 날라다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제주 백성들에게 속곳 한 벌만 만들어주면 옥치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곳 한 벌을 만드는 데에는 명주 1백 통이 필요하였다. 제주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통밖에 안 되어 속곳은 완성되지 못하고,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가다가 중단해버렸다 한다. 현재 그 자취가 조천읍 앞바다에 남아 있다. 할머니는 키 큰 것이 자랑이어서 깊은 물마다 들어서서 자기 키와 비교해보았다. 어느 물도 무릎을 넘는 물이 없었는데, 한라산의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그만 풍덩 빠져 죽어버렸다고 한다. 물장오리는 밑이 빠진 깊은 물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설화는 할머니가 5백 인의 아들을 낳아, 그 아들들을 먹이려고 큰 솥에 죽을 끓이다가 잘못해서 빠져 죽었다고 하여 할머니의 죽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변이형도 있다. 이러한 거녀설화는 해남·강화도 등에 나귀(또는 마고)할머니이하기로 그 잔영을 남기고 있어 널리 분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본래 거인의 창조신화적 성격이 속화(俗化)되면서 단편적 전설로 된 것이라 하겠다.

**장한철의 표해록**

1771년 장한철(張漢詰)이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귀국한 경험을 쓴 표류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서 태어난 장한철은 1770년 12월 25일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류큐제도(琉球諸島, 오키나와)에 표착을 한다. 표해록은 장한철이 류큐제도에 표착한 뒤 일본으로 가는 상선을 만나 구조된 뒤, 우여곡절 끝에 한양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고 낙방한 뒤 귀향하여 쓴 책이다. 당시의 해로와 해류(海流), 계절풍 등에 관한 해양 지리서로서 문헌적 가치가 높고, 제주도의 삼성(三姓) 신화와 관련한 이야기, 백록담과 설문대 할망의 전설, 유구 태자에 관한 전설 등 당시 제주도의 전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어 설화집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장한철은 일행 29명과 함께 1770년 12월 25일 서울로 가는 장삿배를 타고 제주항을 떠났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난다. 그리고 12월 28일 류큐제도에 표착했다가 이듬해인 1771년 1월 2일 일본으로 가는 상선을 만나 구조되어 1월 6일 흑산도 앞바다에 이른다. 그러나 다시 풍랑을 만나 청산도(靑山島)에 표착하여, 밤중에 상륙하다 29명 중

21명이 죽고 8명만이 살아남았다. 1월 13일 일행과 배를 타고 지도(智島)를 거쳐 15일 강진에 이른 장한철은 일행이 모두 제주로 돌아가는데도 혼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한다. 그러나 나방을 하여 귀향해 보니, 먼저 귀향한 7명 중 4명은 죽고 2명은 병중이라 감회를 이기지 못하여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 대외적으로 거의 문을 닫고 살던 당시의 조선에서 오키나와까지 다녀온 장한철의 표류 기록은 귀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아쉬운 것은 책의 양에 비해 표류지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보다는 표류자의 심리를 상세하게 써놓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장한철의 표해록의 원본은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1979년 정병욱이 번역, 출간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2008년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濟州 沿岸 軟珊瑚 群落)
제주도 연안 일대에 분포하는 연산호 군락. 2004년 12월 13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연산호란 부드러운 걸면과 유연한 줄기 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말한다. 현재 서귀포 해역 70,410,688㎡와 송악산 해역 22,229,461㎡가 지정되어 있다. 연산호는 제주도 전체 해양생태계 보전을 상징하는 깃대종(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생물로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이다.

제주 연안 해역에는 한국산 산호총류 132종 중 9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송악산 및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곳으로 분포상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제주도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을 구성하는 산호총류는 무척추 동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았으며 부드러운 동물체로 수축·이완 상태에 따라 크기 변화를 이룬다. 서귀포 해역은 범섬, 문섬, 새섬, 숲섬, 지귀도 등 5개의 섬이 자연방파제가 되어 그 사이에 연산호류와 함께 다양한 산호총류가 암반 위에 화려한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한국산 산호총류 66종은

제주 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으로 수심 10~30m의 암반에 위치한다. 연산호류는 바닷속을 떠다니는 입자성 유기물이나 플랑크톤 등을 촉수를 이용해 잡아먹는다. 고착성 생물로 해류에 의한 먹이 전달에 의존한다. 따라서 해류가 원활한 지역에 서식한다. 연산호 군락지에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의 다양한 산호류가 다양한 형상으로 어울려 서식하고 있다. 연산호가 많은 바닷속은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며, 화려한 연산호 군락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연안의 수중을 꽃동산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송악산 해역 중 대정읍 쪽으로는 3m 깊이에서부터 수심 18m까지 직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다.

**황지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관련항목 보기에 전해 내려오는 황지네를 물리치고 큰 부자가 된 거지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밤이면 어떤 사나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꾸 딸 방으로 들어와서 딸을 못 견디게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우연히 이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과부 주인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창문 앞 난간 밑에 가마니를 깔고 자라고 했다. 거지가 난간 밑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자 “자물쇠야, 문 좀 열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고 보니 웬 청년이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물쇠가 스스로 따지면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고 딸 방으로 들어갔다. 딸 방에서는 한참 동안 비명이 들려왔다. 잠시 후, 그 청년은 밖으로 나와 두루마기를 입고, “자물쇠야, 문을 잠가라”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거지는 자물쇠에게 가서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어보았다. 자물쇠의 말이, 그 청년은 집 뒤 큰 바 가운데에 있는 왕돌 밑에 사는 황지네라고 일러주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거지는 자물쇠가 사람처럼 말을 자유자재로 할 뿐만 아니라 신기한 능력이 있는 영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지가 주인에게 가서 황지네 얘기를 하니가, 황지네를 죽여주면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한다. 거지는 숲 다섯 가마니를 준비하게 하고는, 지네가 산다는 왕돌 주위에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지네는 거지의 예상대로 뜨거운 열기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타 죽었다. 황지네가 죽자 주인이 매우 기뻐하며, 무엇보다 이 은혜를 갚느냐면서 사위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거지는, “황지네 각시하고 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주인이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저기 걸려 있는 자물쇠를 주시오” 했다. 주인은 많은 재물을 내놓으라고 할까봐 간이 조마조마했는데 겨우 자물쇠를 달라고 하므로 “얼싸 좋다!” 하면서 자물쇠를 내어주었다. 거지는 그 자물쇠를 가지고 와서 “집 나오게 하라. 밭 나오게 하라. 돈 나오게 하라” 하여서 부자가 되고, 나머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잘 살았단다.

야래자형 설화는 신화·전설·민담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전해지는데, 보통 ‘야래자(밤에 오는 사람)’의 정체는 뱀이나 지렁이 등이 대부분이고 동삼이나 절구공이일 때도 있다. 제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황지네」에서 야래자는 황지네다. 그런데 전형적인 야래자형 설화와는 다르게 「황지네」 이야기에는 황지네보다 황지네를 물리치고 말하는 자물쇠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는 거지가 주인공 역할을 한다. 이는 야래자형 설화가 제주 지역으로 들어온 뒤 민담화되면서 줄거리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1959년 8월 제주시 용담1동에서 현태호(남, 38세)가 구연하고 현영두(고 2)가 채록한 것을, 현용준이 1996년에 출판한 『제주도 민담』에 실었다.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b>삼청공원</b>

삼청공원 내 ‘열린 서가’ 약수터 앞, 둘레길 체육시설 쉼터, 삼청공원 후문 계곡 옆 정자 등 3곳. 삼청공원을 방문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열린 서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은 삼청공원 숲속 길을 산책하면서, 혹은 공원 내 설치된 정자 및 의자 등에 앉아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다. 약수터 앞 정자 서가에는 힐링을 주제로 한 책자들을 비치, 둘레길 체육시설 쉼터 서가에는 건강을 주제로 한 책이 비치, 후문 계곡 옆 정자 서가에는 인문학 관련 서적이 비치된다. 시집과 소설, 교양서적, 심리 관련 서적 등 총 200권의 책을 볼 수 있다.
[출처: 삼청공원 내 ‘열린 서가’, 서울문화투데이]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84

##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 시연 시나리오 류정월. (2017).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소환. 여성문학연구, 41, 7-37.
논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더해 각색하였다.
[출처: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소환 The recall of ‘Sulmundaehalmang’ in Jeju Stone Park]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Id=ART002261641

### 오늘 오름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이진경, 고미숙 저, 문학과학계, 2002)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무수한 경계들을 해체하는 것이다. 자연의 침묵을 전제로 인간의 독주를 가능케 했던 모든 표상의 격자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견고한 철책을 거두고 새로운 에콜로지의 지혜를 터득해야 할 때다. 저 바람계곡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 푸른 옷을 입고 황금의 들판에 설지니/ 그때 잃어버린 대지와와 끈을 다시 맺고서/ 저 푸른 청정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눈먼 할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나우시카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에코소피아’를 향한 대서사시 - 고미숙]
[출처: 고미숙의 行실수철,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103281947285

『혼자 산다는 것』(메이 사튼 저, 최승자 역, 까치글방, 1999)
시인이자 작가인 메이 사튼의 정신과 육신의 삶에 관한 1년 동안의 일기. “나이를 더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이 기록의 범위는 자연, 예술, 사랑, 페미니즘, 죽음, 우정 그리고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이 일기는 작가가 58세 때에 쓴 것이다). 삶의 조화와 갈등이 섬세하게 교차하는 이 감성의 드라마를 관통하는 것은 ‘고독’이다. 그러나 사튼의 고독은 영혼을 위한 ‘창조’의 공간이다. 이 공간을 여행하는 그녀는 자아를 발견하고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을 실현한다.
[출처: 『혼자 산다는 것』 책 소개, 까치글방]
http://kachibooks.co.kr/sub/view.htm?book\_code=182&category1\_code=23

### 중력과 은총

『중력과 은총』(시몬 베유 저, 윤진 역, 문학과학지성사, 2021)
좌파/기독교 신비주의자, 전쟁에 반대하고 약자들을 위해 투쟁했던 운동가/유토피아와 혁명의 비전을 거부하고 ‘수난’에 주목했던 사상가, 광신적 금욕주의자/모든 아웃사이더들의 수호성인. 일직선상에 놓기 힘든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수식어들로 호명되어온, 프랑스의 철학교사이자 노동운동가, 사상가 시몬 베유의 대표작.

p. 7
영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은 물질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p. 19
은총은 채운다. 하지만 은총은 받아들이기 위한 빈자리가 있는 곳에만 들어온다. 그 빈자리도 은총이 만든다.
[출처: 『중력과 은총』 본문 속으로, 문학과학지성사]
https://moonji.com/book/30138/

### 물결 위 밀랍

『부테스』(파스칼 키냐라 저, 송의경 역, 문학과학지성사, 2017)
밀랍으로 귀를 틀어막고, 허리를 뱃머리에 묶고, 현을 키며, 셰이렌의 노래로부터

도망치는 자들 가운데, 바다(음악, 모성)에 스스로 몸을 던진 자. 물에 뛰어드는 욕망, 다이버의 원형, 청취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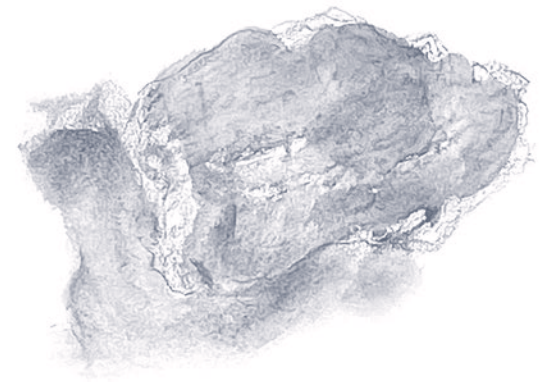
p. 21
부테스는 갑관으로 올라가 뛰어내린다. 음악은 사고(思考)가 두려움을 느끼는 곳에서 사고한다. 음악에 앞서 여기 있는 음악, ‘길을 잃을’ 줄 아는 음악은 고통을 무시워하지 않는다. ‘파멸’에 노련한 음악은 이미지가 명제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도, 환영이나 몽상으로 자신을 기만할 필요도 없다. 음악이 고통의 밑바닥에 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분절된 언어에 앞서 존재하는 노랫소리는 애도에 잠긴 ‘길 잃은 본성(la Perdue)’으로 다이빙한다. 무조건 뛰어내린다. 부테스가 뛰어내리듯 그저 뛰어내릴 뿐이다.

[출처: 『부테스』 본문 속으로, 문학과학지성사]
https://moonji.com/book/13519/

### 사랑의 죽

[출처: 고라니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병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412
[출처: 꽃자왈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동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782
[출처: 닳뜰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용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2612
[출처: 백록담 전설 -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허남춘]
http://aks.ai/GC00700855
[출처: 산양리 -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권상철]
http://aks.ai/GC00710412
[출처: 삼승할망본풀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용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6696
[출처: 설문대할망 설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용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8698
[출처: 장한철의 표해록 -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김상조]
http://aks.ai/GC00702485
[출처: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명철]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5036
[출처: 황지네 -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현승환]
http://aks.ai/GC00702689







청미래: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그 트라우마를 많이 다루요. 심리 치료할 때, 우리가 그걸 직접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어.

현덕: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거야.

윤이: 아, 그럼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있으셨던 트라우마인데 계속 그게 체기처럼 있으셨는데 그거들요?

현: 몸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냥 놔두면 암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청: 대개 일고여덟 살 때 그런 일을 겪는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추적을 해요. 추적한 다음에 그걸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해체해나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울증 많이 걸리거든. 사람들이. 이 현덕 님도 우울증 있었거든.

현: 우울증으로 약을 한 주먹씩 먹었어요, 제가. 한 일 년 넘게.

윤: 네.

청: 근데 그거를 다 끊었지. 이제.

윤: 자연 요법. 자가 치료로요? 명상하시면서?

현: 네. 자가 치료. 이제 그런 건 없어.

청: 네. 모든 우울증, 정신병은 다 자가 치료로 해야 완치가 되는 거지 약만 먹고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

현: 안 되거든.

청: 원래 완치는 없어요. 약 먹어가지고는. 공황장애나 조현병이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가 치료를 해야 돼.

윤: 근데 그 자가 치료 방법이 뭐를...? 명상법이라든지.

청: 그 방법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해봤어요.

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윤: 네. 몰라요. 그 길이 궁금한데요. 선생님 그때 저희 숲 길을 때도 땅에서 너무 멀리 너머로 가서 몸의 균형이 오히려 깨지셨다고. 그 이야기가 저는.

청: 제가 그랬어요. 지적 물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윤: 아, 네.

청: 성철 스님이나 이 한국에 조사선계열 운동한 사람이,

화두선. 화두를 잡고서 거기에 물입집중을 하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생기나면은, 화두를 들고서 물입집중을 오래 하잖아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백일을 했는데 그게 주제가 뭐였나면, 화두가 '나'였어요. '나'.

현: '나'라는 문구를 띄워놓고 하는 거죠.

청: '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걸 화두 삼아서 딱 물입집중을 해요. 나에. 그래 가지고 백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반 정도 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는데, 난 하다가 보면 무지하게 열심히 하거든. 밥을 먹으나 화장실을 가나 24시간 물입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지. 나가 보니까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더라고. 이상하다 왜 강아지가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끼를 낳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시간 지나간 것을 모른 거야. 까먹고서.

윤: 그럼 며칠?

청: 백일 집중 수행을 했는데.

윤: 어디 그럼 밖에 안 나가시고.

청: 네.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만 계속 집중한 거예요. 혼자서.

윤: 그럼 음식이나 이런 건?

청: 그건 다 그대로 먹고.

윤: 아, 그냥 혼자 계속 지내면서. 그러니까 뭐 방에서 지내면서...?

현: 하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윤: 계속 수행하는 마음으로요?

청: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자세하고 앉아가지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거야. 항상. 일할 때도 '나란 무엇인가'에 물입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그러고, 잠을 자도 그러고, 계속 물입 상태에 있는 거야. 거기에. 그 한 점에. 계속 물입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는 걸 모르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나면은, 잠을 잘 때도 그걸 하고 있어요. 거기 물입 상태야.



청: 사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잠을 자면서도 중간에 깨잖아요? 깨면 그걸 알아. 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자동으로 넘어가. 자동물입 상태에. 즉 하다 보니까 이제 백일이 차서 이제 그만뒤야지 하고서, 그만해야지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만해야지 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아. 습이 붙어가지고.

현: 이제 완전 붙어가지고 내 거가 되어 있는 거죠.

청: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자동으로 물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메기가 힘들어. 그걸 오히려. 억지로 이제 그만뒤야지 해도 그게 잘 안 떨어져. 버릇이 돼서. 그게 오히려 어렵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밤에도 계속 물입 상태가 돼. 잠잘 때도. 물입 상태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도파민이 이 뇌에 있잖아요.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되는 거야. 아무 때나. 나중에 그게 병이 돼. 도파민 과다 분비로. 그게 조절이 안 돼.

윤: 아, 각성 상태.

청: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계속 각성 상태예요. 잠이 안 와. 그러면 사람이 무지하게 힘들거든. 잠을 못 자면은.

윤: 그럼 그 물입 상태라는 게, ‘깨침’ 뭐 그런 거예요?

현: 항시 깨어 있는 거. 항시 깨어 있어서 뭘 일이 있어서, “청미래 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크르릉’ 하고 깊은 잠을 자는 거 같은데, “청미래 님”하면 “어!”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생시처럼 “음, 왜? 뭐 땀에?” 그래요.

청: 그게 물입의 경험이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그때 조릿대숲을 개발했어야 해요. 그게 우리한테 떨어졌어. 조릿대숲을 개발하라고. 그런 연구 과제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여기 사유로 끝내. 사유로. 집중된 사유로. 그걸 찾아낸다고.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니고. 물입집중을 해서 이 안에서 뇌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시뮬레이션.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냈다니까.

윤: 음...아, 어디에 있는지?

청: ‘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가 답이 나와요.

윤: 네. 그게 스포츠 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한데요.

청: 아 그래요?

윤: 네. 그게 이제 꿈이랑, 왜 수행에도 스님들이 자각몽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감독들도 배우들한테 캐릭터에 대해서 미리 그 꿈 시뮬레이션을 하면...

청: 아...의식화시키기는구나.

윤: 꿈에서 그 인물을 트레이닝해보고 리허설해보고 해서 실제 캐릭터에 대한 접근을 더.

청: 물입도가 깊어지지 그러면.

윤: 요즘에 학문에서도 많이들. 특히 과학이 다시 또 불교로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청: 그렇죠.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어요. 항상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도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어버려. 그럼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건강이 무지하게 안 좋아져.

현: 약초 하면서 왜 건강이 그래요 물으면 참 설명하기가 그런 게 이 수행을 하면서...허허.

청: 그런 부작용이 있어 그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불교에 화두 선언하는 스님들이 그 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을 거 같아.

현: 사유, 그 도파민 때문에.

청: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도파민 과다 분비나 이상 증세가 있어서 나중에는 아마 도파민 양이 적게 나올 거 같더라고. 그러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면 거기 걸린 사람들은 자살하지 대개 다. 그걸 아니까. 도파민이라는 생각은 못 하지. 그러니까 이 화두선언 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생각은 아직 못해. 물입집중이 무조건 깨우침으로 뭐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아니거든. 그건 ‘삼매’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윤: 삼매요?

청: 부처님의 삼매는 그게 아니거든. 부처님의 삼매는 이 몸 안에 잠재 성향의 무더기들이 있잖아요. 업. 그것이 완전 깨끗해져서 청정해졌을 때 그게 삼매거든. 물입집중을 얘기하는 건 대개 요가하는 사람들이 물입집중을 삼매라고 얘기해요. 삼매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부처님의 삼매는 물입집중 삼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물입집중 삼매라고 생각하지.

윤: 비워내는...

청: 네. 비워내는 게 삼매예요. 진실되게. 그게 차이가 있어.

현: 그 업의 무더기는 그냥 안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입집중 수행 같은 걸 해서 그게 해결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와 결합해야 하는 게 있거든.

윤: 어떤...?

청: 부처님의 수행법에서 삼매는 전혀 달라요. 그게.

윤: 네...

청: 이제까지 부처님의 삼매에 대해서 부처님은 분명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내려오다가 끊어버렸어. 근데 남방불교 『니까야』에는 그게 나와 있어. 근데 『니까야』를 본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야. 봐도 이해를 못해.

윤: 그럼 공부하시고, 따르는 것이 남방불교예요?

청: 두 종류가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사셨던 남방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던 『니까야』란 경전이 있고, 그다음에 후대에 몇백 년 후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만들어진 대승불교의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이런 구성이 있어요. 두 가지.

현: 그게 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백 년 있다가 나중에 바로 그런 거예요.

윤: 아, 성경의 신약 구약 같은.

현: 그런 것처럼.

청: 그러니까 『반야심경』, 『금강경』 그거엔 부처님의 오리지널은 안 들어가 있지.

현: 안 들어가 있지.

윤: 음...

청: 거기는 ‘삼매’ 개념을 볼 때 물입집중을 삼매라고 이야기하고, 부처님은 안에 잠재 성향의 무더기, 업을 싹 소멸하는 게 부처님의 삼매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스님이 지금도 화두선언 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알고서 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

윤: 물입 상태가... 네.

청: 물입집중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평정심은 아주 고요해져요. 내가 화두선언 해보니까 할 때는 평정심이 진짜 완전 지극한 평정심이 얻어져요. 지극한 평정심이 얻어지면 정작 이 안에 있는 무더기들은 소멸되지 않아. 잠재적으로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 내가 그 화두선언을 그만두고서 다시 속세 생활로 들어오니까 삼 개월 지나니까 이 약발이 다 떨어지더라고. 다시 중생심으로 바뀌는 거야. 안 하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윤: 음...

현: 그렇다고 해서 업이, 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그 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왔을 때는 그게 또 나온다는 거지. 멈춰져 있는 것처럼 있다가. 다시 속인으로 왔을 때 그게 다시금 그 업이 되살아나서 무더기가.

청: 그러니까 화두선언은 한 대상에 집중해서 무의식의

업이 올라오는 것을 잠깐 어느 대상에 묶어두는 거야. 안 일어나게. 못 움직이게. 잠깐 묶어두는 거야. 한곳에 집중해서. 묶어둘 때는 안 일어나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중생 생활하면 또 일어나요 그게. 물입집중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문제더라고. 직접 해보니까.

청: 나는 그러니까 수행을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반야심경』, 『금강경』의 토대가 뭐냐면 그 수행법에서 ‘구차제정’ 수행법이라고 있어요. 여덟 가지 빛을 물입해서 수행하는 거지. 그 수행을 하면은 『금강경』, 『반야심경』,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현: 없다. ‘공’. (미소)

청: 네. 공.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부처님은 처음에는 그 수행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해보니까 선정 상태에서는 잠념 망상이 일어나지 않지. 번뇌가 괴로움이.

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지만 나오면...

청: 선정에서 나오면 잠념 망상이 다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버려버렸지.

현: 버렸어요.

윤: 엇그제인가. 부산 그 법상스님 ‘묵탁소리’?

청: 네.

윤: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데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청: 네.

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뭐 ‘공즉시행’...?

청: ‘공즉시색’.

윤: 아니, ‘색즉시공’이 아니라 ‘공즉시행’. 행으로 가야 한다고.

청: 아. ‘공즉시행’으로?

윤: 네. 그래야 ‘행즉시공’이 된다. 그래서 그 깨우친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세속에서 자꾸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청: 피하지.

윤: 네. 진정한 깨침은 이제 그 세속에 있어도.

현: 결림이 없어야 한다.

윤: 네. 결림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어떤 스님처럼 같이 약주를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함께 행해야 한다.

청: 그렇지. 맞아요.

윤: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요하고 싶어서 깨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숨는다고. 그런데 거기서 더 깨달으면 오히려 속세에 내려와서 있어야 한다고. 그 말씀 비슷하게 하셨던 거 같아요.

청: 그렇지. 피하면 안 되는 거야.

현: 그렇지. 속인으로 돌아와서 속인하고 어울렸을 때, 부처님께서도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형제를 떠나는 이유가, 떠나서 수행했던 이유가, 왜 있을 때는 옛날 기억이 향시 떠올라. ‘내가 어렸을 때 뭐하고 살았지.’ ‘뭘 하고 뭘 먹고 무슨 형제 하고 더 친했고 부모한테 무슨 사랑을 받았지.’ 그게 형제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시절이 다 보여. 다 느껴져요.

윤: 카르마. 네.

청: 그게 다 올라오는 거야.

현: 올라와서 그 시절로 다시 가 있어. 그럼 수행하는 데 엄청난 방해야. 고향을 떠나고 출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청: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한 다음에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거지.

현: 그렇지. 근데 출가하고 절에서 수행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의 업이 떨어졌냐. 없냐. 아니 있더라는 거지.

윤: 그 업을 안에 묶어둔다고 하시는 거예요?

현: 그렇지. 묶어둔 상태인 거지. 다시 속인으로 왔을 때 이게.

윤: 그래서 그럼 수행을 그냥.

현: 죽을 때까지 하다 가. 그러니까 힌두교 법에서도 몰입집중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 들어가 있어야 행복하지 거기서 나오면 불행하거든.

청: 그 부분을 ‘선정주의’라고 하지. 부처님이 경계하셨던.

윤: 저희 약초학 이야기하다가 너무...

청: 그래서 그 화두선언 하다 말았는데 몰입집중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약초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맨 처음에 그 느릅나무를 했어요. 한방에서 느릅나무 뿌리를 캐면,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열심히 하러 다녔지. 그 느릅나무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자들 왜 유방에 그 종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느릅나무 뿌리를 캐서 갠 다음에 거기에 박아놓으면 안에 저기를 짝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현: 아 염증을?

윤: 종기처럼요?

청: 종기에 그 고름을.

현: 아, 응.

청: 유방에 종기가 있으면 거기다 찢어서 그 구멍 난 데다 해놓으면 짝 빨아당긴다고. 그런 효과가 있는 식물이거든. 암에도 좋고. 그래서 한 종목만 한 일 년을 했어요. 내가 산에 갈 때는 느릅나무밖에 안 보지. 이제 집중력이 좋으니까 그걸 찾아냈어.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종목을 하나 더 늘렸어. 오가피로.

윤: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산 다니시면서 공부하신 거세요? 아니면...?

청: 그게 이제 먹고살려고.

윤: 동의보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웃음)

청: 그런 건 안 보고. (웃음)

윤: 아, 그게 그럼 수행이랑 거의 겹치는 시기인가요? 산에 다니시고.

청: 그렇죠. 네네.

윤: 혼자 오두막집. 그러니까 다니시다가 오두막집 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하려고 오두막집...?

청: 처음부터 오두막집.

현: 오두막집에서 살다가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청: 같이 했어. 같이. 오두막집에 들어가 살면서 약초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시작한 거지.

윤: 그럼 처음에는 주변 분들이나 이렇게 나눠주신...?

청: 오일장에 나갔어. 오일장.

윤: 오일장에. 네네.

청: 오일장에 내다 팔았는데 내가 얼마나 숫기가 없었냐면은 오일장에 가서 약초상들 짝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

윤: 산삼 캐고 심마니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되게 텃세도 있을 거 같은데.

청: 그렇죠.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잖아.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약초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해왔으면 좋겠냐고.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팔아달라고. 그런데 숫기가 없어서 그 얘기를 못해 가지고 두어 번이나 오일장을 뱅글뱅글 돌다 그냥 왔어. 그 정도로 숫기가 없었어요. 나중에야 가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느릅나무 뿌리를 캐오라고. 그게 제주산 느릅나무 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오일장에서 얘기를 들은 거야. 오일장에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 년 동안 그걸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거 한 가지만 있어. 그게 항상 몰입집중 상태였지. 항상.

청: 산에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한 종목을 늘려서 오가피를 집어넣지. 그다음부터는 오가피를 한 육 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오가피를 집중몰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녁에 잠잘 때도 오가피가 확실하게 이미지가 있고.

윤: 워낙 꽃히는 성격이신가 보네요. (웃음)

청: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가봐도 알아 이제. 그런 신통이 생기더라고요.

윤: 아... (웃음)

청: 이제 오가피가. 속 지나가면서도 알아. 아 저기 가면 분명 있겠다는 느낌이 와요. 그게.

윤: 축이... (웃음)

청: 그 정도는 감이 와요. 가보면 있어. 거기.

청: 내가 하도 저기 있어 하니까 열사람한테도 저기 보면 있어요.

현: 지나가면서도 ‘저기 비파 있는 거 같아’ 그러고 가서 보면 있어요.

윤: 어. 그거는 축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뭐가 부르는 거 아니예요? 식물이? (웃음)

청: 어떤 느낌이 있어요.

윤: 어떤 고감 같은 게...?

청: 필이 와요. 훗이. (웃음)

윤: 아니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하면은. 그때도 왜 우리 투어 때 선생님이랑 잠깐 자연의 지능에 대해 질문드렸잖아요. 자연의 감각 그런 거, 혹시 다니시면서 경험하신 에피소드나 이런 거 궁금했거든요.

청: 네네.

윤: 그리고 아까도 수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어요. 제가 불교 용어를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 앞에서 말을 꺼내기가 너무 부끄러운데요. (웃음)

현: 답 쓰는 거 아니예요. (웃음)

윤: 네. 그냥 제 표현으로 그러니까 너무 ‘열반’? 넘어서면 벗어나면 안 돼서 자기는...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일부러 흡연, 담배를 태우신데요.

청: 어...일부러 내려오는.

윤: 네. 그래서 땅에 묶여 있는 무언가를.

현: 붙잡기 위해서?

윤: 네. ‘습’은 아닌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자가 된 청소부』? 혹시 그 책 아세요? 누가 추천해줘서 저도.

예전 인도에 무슨 구루.

청: 아, 옛날에 ‘정신세계사’?

윤: 네. 거기서 제 도반 같은 친구가 얘기해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나쁜 습관,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사람들 고생하잖아요. 아까 트라우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이제 수행하지만 세상이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걸 갖기 위해 때로는...

청: 응. 지나치게 너무 끊으면 안 되지. 다리를 걸쳐놔야지.

윤: 달리 보면 약간 중력 같은 거 같은데. 어찌 보면 식물들도 그런 굴레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청: 식물도 정신세계가 있어요.

윤: 네. 그런 이야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선생님 철학, 생각, 아니면 깨침 같은 거, 다니시면서 그런 거 좀 궁금했어요.

청: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오가피를 했지. 오가피를 하니까 이제 안 가봐도 알아. 느낌이 필이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육지에 산악회나 나가라고. 이제 산삼 잘 찾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변경을 했어요. 오가피면 오가피, 느릅나무면 느릅나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따지면 한 가지만 집중하잖아. 그럼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윤: 안 보이죠...? 아니, 보이죠...?

현: 안 보이죠.

윤: 왜죠?

청: 한 가지만 몰입하니까 주변에 다른 것은 안 보이지.

현: 그냥 스치는 거지.

윤: 아... (웃음)

현: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치는 거지.

청: 오가피 하나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다른 식물들은 하나도 안 보여.

현: 봤다고 해서 거기에만 기억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스치는 것뿐이지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청: 거기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가피밖에 안 보이는 거지. 느릅나무는 느릅나무.

현: 우리가 배가 심하게 고파. 앞에 쌀밥이 있어. 그럼 쌀밥만 보이지 다른 거 주위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랑 똑같거든.

청: 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육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약초 산행을 가게 됐어. 약초 산행을 한 품목을 지정해서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저번처럼 나타나는 건 그냥 다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산을 가면서 오가피하고 느릅나무 상을 머릿속에서 내려놓으니까 나머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식물들이. 예전에는 오가피만 보려고 여기에다가 상을 붙이고 살았는데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다른 식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엉성퀴부터 여러 가지 다른 식물이 다 보이는 거지.

윤: 네.

청: 거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한 점에 몰입집중하는 것은 집중된 몰입삼매고 그다음에 집중된 한 점에 그 상을 내려놓으니까 나머지가 다 보이는 거지. 다른 식물이 다. 바닥에 깔려 있는 다른 식물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그걸 이제 ‘풀린 삼매’라고 하지. 그게 부처님의 삼매예요. 원래는.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윤: 네.

청: 옛날에는 몰입집중해서 오가피만 봤는데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그 상을 내려놓으니까 나머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있는 그대로 다 보여요. 그게 차이점이야. 부처님 공부하고, 몰입집중 상태의 그런 수행들하고 차이점이야.

윤: 네.

청: 몰입집중 상태의 그런 이야기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때만이 평정심이 있어. 몰입했을 때. 하지만 부처님은 완전히 업을 소멸했기 때문에, 상을 내려놓고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삼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런 경험이 있었지.

윤: 자기 괴로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놨을 때.

청: 네. 내려놨을 때는 다른 것도 다 보이는 거지.

현: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을 때 쌀밥만 생각하고 있다가 밥을 딱 먹고 나면 주위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반찬도 있는 게.

윤: 네.

현: 마찬가지로야.

청: 그러니까 상에 지나치게 몰입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변을 못 본다고. 어느 한곳만 쳐다보면. 정계도 그렇고 어디나 주변을 못 보지.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이 지나치게 사업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식들이니 마누라는 다 등한시하잖아요.

현: 등한시킬 수밖에 없지. 하나에 신경을 쓰면.

윤: 네. 몰입하면 그렇죠. 그래서 약초를 늘리셨어요?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웃음)

현: 그렇죠. 지나가면서. 우리가 일 년에 한 칠백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일을 같이 나가잖아요. 저기 뭐가 있을 거 같다. 가보자. 식물이 어디 있는지 다 그걸 못 찾거든. 그렇잖아요?

윤: 네.

현: 근데 이제 삭 스치면서.

윤: 처음부터 제주 자연 숲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청: 네. 다른 데는 안 하고.

현: 제주도를, 성산 같은 데를 막 한 달씩 걸어서 도보로. 산속을 다 헤메면서 길을 알았고, 어디에 무슨 식물이 있는지를 알게 되셨거든요.

윤: 어머어마하잖아요. 제주도. 저는 그냥 스치듯이 보지만 제주도 식생이 진짜.

청: 제주도 바닷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걸어서.

현: 걸어서.

청: 바닷가를 한 바퀴 돌았지.

현: 뭐 구경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이 식물을 봐가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주도 어디에 뭐가 많더라.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손바닥 보듯이.

윤: 그거는 이제 효과들을 모으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월 지나면서. 민간요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으고 적용해보고 효과가 있나 이렇게 해보신 거세요? 아니면?

청: 그것도 해봤지. 그것도 해보기도 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자리공’ 있잖아요?

윤: 네. 그 얘기 재밌었어요.

청: 자리공도 써보니까 담에는 최고야. 담에는.

윤: 네. 그 등 갈라지고. (웃음)

현: 담 걸렸을 때.

현: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담이.

청: 무지하게 힘들거든.

윤: 네? 담이 돌아다니네요?

현: 네. 담이 돌아다니네요. ‘어!’ 해가지고 허리만 아팠잖아요. 나중에 보면 여기에 와 있어. 어깨에도 와 있고. 애가 막 돌아다니네요. 담이. 그렇게 담이 힘든 거예요.

청: 약도 없어.

현: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도 담은 나타나지 않아요.

윤: 네. 그러니까요.

현: 근데 애가 돌아다니. 이쪽도 아팠다 저쪽도 아팠다 그래 담이.

윤: 심리적인 요인과도 상관있을까요? 왜 울혈 이런 거.

청: 심리적인 거하고 상관 있어. 담은.

현: 있는 거 같아요.

청: 내 조카가 직장에서 누구하고 싸웠대. 싸우고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담은 골프 칠 때 갑자기 긴장하거나 뭐 했다가 하면.

현: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면.

청: 긴장해서 생기고.

현: 무리를 해서 아프거든요.

청: 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무의식 무더기 있잖아요. 무더기인 거 같아. 내 아는 후배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오이밭에서 오이를 서리했어. 먹고서 집에 왔는데, 거기 혹시 제초제가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어련내가 공포심, 두려움, 죽음에 대한 생각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지나친 공포, 두려움은 몸 안에 형성이 돼요. 무더기로. 잠재 성향의 무더기로 형성이 된다고. 담처럼 돼. 그게. 개가 지금 그제 있는데 움직여. 그게.

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파서 치유하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 있고. 숨어다니. 도망 다니는 것같이.

윤: 생물 같네요?

청: 병원 가서 찍으면 안 나와.

현: 근데 아파서 고통스러워.

청: 그리고 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몸에 딱정이가 생겼는데. 아파서 그 딱정이를 떼어 먹었대요. 그러고서 혹시 그 딱정이가 뱃속에 들어가면 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한 거지. 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무지하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더기로 형성이 된 거지. 개가 여러 번 그게 형성이 되어서 몸에 고통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제 지금도 아프고 있어. 근데 우리가 자리공을 먹여서 좀 해보려고 해도 자리공으로 잘 안 되더라고.

현: 제가 수행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보고 ‘내가 이렇게 아팠었구나’ 하고 안 다음에, 호흡과 함께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애가 사라지더라고요. (후략)

## 청미래

젊은 시절 제주도에 정착해 제주의 약초와 생태계 연구를 시작했다. 깊은 사유를 통해 재해석한 불교의 탐진치 이론을 강연과 소모임을 통해 알리는 한편, 제주 자원식물연구소를 운영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제주의 약초와 식물이 현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제주 오두막집에서 찾은 자유』(좋은땅, 2019)를 출간했다.

## 고마운 분들

예술꽃산양 레지던시 3기

권혜원, 김하림, 박길주, 박한나, 박희자, 전희경 작가님

예술꽃산양 직원

강희수, 정현미, 강상호, 강순지, 김영아, 양동우 선생님

박남희 선생님, 목화와 포켓

제주자연식물연구소

임일빈, 방경희 선생님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씬프리다이빙, 디퍼프리다이브, 이음,

요가콜라, 숨 쉬는 고래, 카고크루즈, 수수로

강상미, 김은형, 김재훈, 성예진, 심래정, 엄인성, 이세욱,

이유진, 이은혜, 이혜원, 조재영, 조태용, 주원익, 최혜령, 토토

## 이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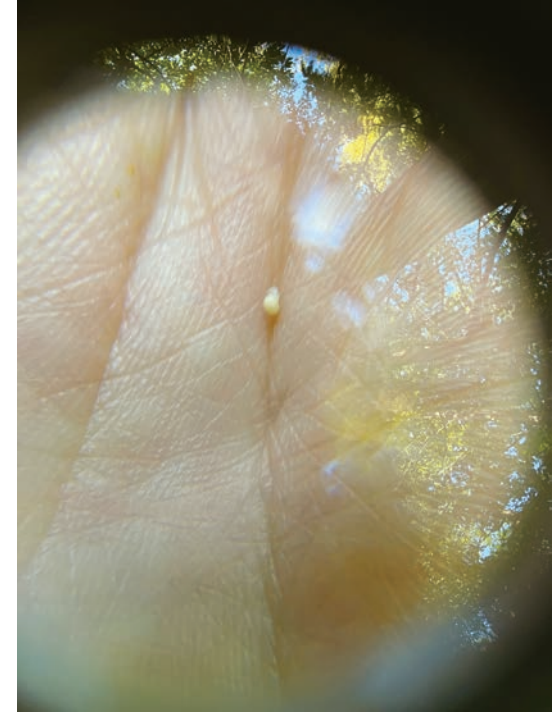
경험과 이야기를 넘나들며 시각적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자연과 지역 사회에 근접한 스튜디오 환경은 촉각, 청각, 시각적 인식을 둘러싼 감각의 무늬가 되어준다. 몸을 누이는 작은 방과 스튜디오로 향한 길, 그 사이에서 마주치는 작은 곤충들과 식물, 동물, 사람들. 세계와 작업장을 오가며 고요한 방으로 스며들어 잠드는 것. 이 순환이 주는 건강한 창작과 고립의 시간을 다시 제주에서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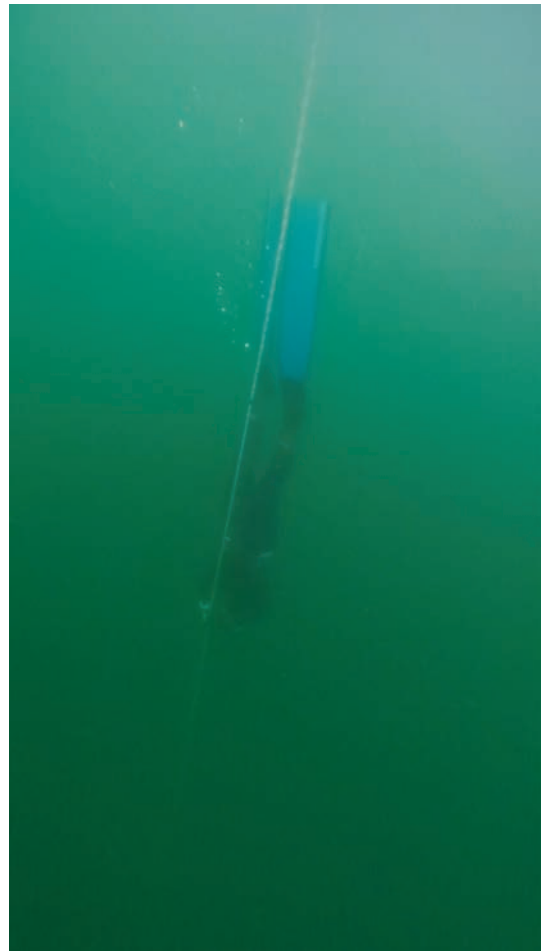
My practice revolves around the procurement of visual narratives, traversing the realm of human experiences and stories. The studio space I inhabit takes on a profound significance as it interfaces with nature and the local community, endowing it with a rich sensory tapestry encompassing touch, sound, and sight. The small room in which I lay down, the path to my studio, and the small insects, plants, animals, and people I encounter in between.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world and the studio, and then retreating back into the silence of the room to sleep, this cycle provides me with a wholesome time of creativity and isolation again in the Jeju island.

yiyunyi.com

yiyunyi@gmail.com







오늘 오름 Gravity toward the Island  
이윤이 Yi Yunyi

초판 1쇄 발행 2023년 11월 3일

글, 사진, 그림  
이윤이

구성  
퍼레이드&패치워크

디자인  
Plate

교정교열  
박동욱

이미지 제공  
루페 ©성예진  
다이빙 ©최세원  
프로필 ©최혜령

인쇄  
정원 프로세스

펴낸곳  
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꽃산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www.sanyang.or.kr](http://www.sanyang.or.kr)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ISBN  
979-11-92349-21-3(03600)

©이윤이, 2023.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과 사진은 무단 사용이 불가하며,  
저작권과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